□문화진단 —무분별한 연예인 따라하기

맹목적 욕구충족을 위한 모방

오 윤 자
〈학생생활연구소 상담교수〉

계절의 변화속에서 일년 내내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캠퍼스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조금은 스산해져가고 있다. 문득 옷깃을 여미면서 '나'를 돌아다 보며 생각에 잠겨본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아, 이것은 황신혜 핀이예요, 그리고 이것은 최진실 목걸이구요. 굉장히 인기있는 것들어예요, 한번 해 보세요" 요즈음 악세서리나 옷가게 주인의 권유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매우 일탈된 행위를 한 사람들을 통해 "영화를 보며 흉내냈어요" "책을 보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제 주변이 모두 그래요. 그래서 저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요즈음의 일상에서 매스 미디어의 지대한 영향을 종종 실감할 뿐 아니라 지나친 '모방'에 유감을 표한다. 우리에게 비춰지는 다양한 역할과 가치속에서 하필이면 부정적이거나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을 주로 모방하고자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나 역시 모방에 능숙하다. 예를 들면, 각박한 나를 풀어주는 한량없이 퍼부어주는 사랑, 소실적의 아름다웠던 기억을 강하게 흔들어주는 정이 담뿍 담긴 글, 캄캄한 중에 불빛이 되었던 깊고깊은 감사의 고백, 빛바랜 흑백사진 등을 보며 가슴을 울렁이거나 코끝이 찡함을 베껴내곤 한다.

많은 학생들을 강의실의 안과 밖에서 가깝게 만나고 바라보면서 대학생이라는 환경속에서 주어질 수 있는 잇점중에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좀더 통합된 인간으로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정체감 정립을 위한 갈등과 고민의 발달단계로 각자에게 영입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아울러 그것을 자신에게 所用되도록 잘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본다. 즉 현재의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에 대한 새로운 탐색기를 접하고 그로 인한 정체감 형성을 이루려는 危機의 時間들을 충분히 활용해 봄직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생의 시기는 내적 충동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되고, 사회적 요구에 대한 주변인으로서의 존재적 특징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고 시간적 조망과 함께 인지적 능력이 확장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에 대해 Erikson을 자기존재의 통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고 고양시켜 나가는 ego quality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아가 내적 충동 및 욕구를, 외적 압력 및 유혹 그리고 도덕적 구속들을 자기다운 독특한 방식으로 조정 내지는 통합함으로서 고유한 자기동일성을 견지해 나가는 자각과 함께 의식적으로·무의식적으로 해나가는 노력이 바로 자아정체감의 형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시기로서의 대학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세대적인 특성을 따라 톡톡 튀는 개성을 발달시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덜 성숙된 조건속에서·간접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모방이 빈번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또다른 창조를 잉태할 수 있는 건강한 모방 행위가 가질 수 있는 필요조건을 단적으로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하나는 자아성찰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나', 다른 하나는 가치있는 모방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건전한 모델이다. 부연하면, 우선 자신에 대한 탐색·이해·수용·개방의 과정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 '나'의 모습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모방하게 되는 모델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모델을 찾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또는 가장 쉽게 대면할 수 있는 모방의 모델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기본적인 사회집단이며 동시에 1차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족에 속해 있으며, 그 가족속에서 많은 것을 주고 받는 포괄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지내고 있다. 이제껏 종종 서양에 비해 그리고 동양의 어느 나라보다도 가족간의 결속력이 우수함을 자부해 왔지만, 실제 우리 가족의 모습이 여전히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는가? 정신적인 이산가족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가족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델을 통해 어떤 모습을 모방하여 자신의 정체감 형성을 위한 질적인 소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짚어볼 때, 모두가 속해 있는 오늘의 가족속에서 쉽게 찾아지지 않는 이상적인 모델이 철학적 가치의 유용성 이전에 당위적인 필요에 의하여 시대적인 부추김속에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래서 더욱 수월한 선택으로 또는 부심함으로 모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상적인 모델을 제공하는 매스 미디어를, 상술을, 모방자를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신바람나게 따라할 수 있는 가까운 모델을 훨씬 더 가까이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황신혜의 머리핀을 하지 않아도, 최진실의 목걸이를 하지 않아도 매우 당당할 수 있도록 서로의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반면, 모방이 무조건적으로 나쁘기만 하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담답함보다는 또는 맹목적이고 나를 잃는 모방보다는,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모방행위를 통해 그것의 장점을 더욱 강화하면서 '나'에게 내재화시키고 그러므로서 주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방형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성장을 위한 스스로의 감동적이고 진한 思考旅行을 통해 자유롭게 노출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찾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필요한 모방을 위하여 '나'에 맞는 모델을 제대로 선택하는 안목 역시 키워져야 할 것이다. 나는 며칠 전 신문에서 언젠가 내 삶의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아니면 너무나 커다란 기쁨이 나를 눈멀게 할 때 모방하고 싶은 글귀들을 발견했다. '내일 아침, 처음으로 할 일이 없는 하루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갈 길을 깨워 준 훌륭한 조언자였습니다'이 귀절 중 전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봅 도울의 감사와 격려가 철철 넘치는 패배 인정 연설문의 시작이고, 후자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빌 클린턴의 선거 직후의 지극히 겸손한 회답속의 한마디이다. 우리 역시 먼저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선별된 모방을 통해 자신 뿐 아니라 주변까지도 훈훈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 지구의 모퉁이에서 계속 전쟁을 치루는 이들에게 참된 평화의 모습을, 오랫동안 不在로만 일관되어 온 아버지의 자리를 위한 좋은 아버지의 역할, 師弟간 가슴의 울림, 세대적 차이를 용해하는 풋풋한 3世代식 사랑, 메마른 삶에 대한 잊혀졌던 은은한 향내, 한번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지적인 자극, 정열만을 앞세운 이성의 사랑을 일깨우는 성공적인 사랑관계….

▲ 몰 개성화를 대변하는 선전문구

가정 역할의 축소화도 깊은 연관
건전한 모델제공·참된 모방형태 마련돼야

□우리문화가 쇠퇴한다 —(完) 한국화

한국미술 무비판·무국적 사조 확산

'전위적 전통, 전통적 전위성' 구축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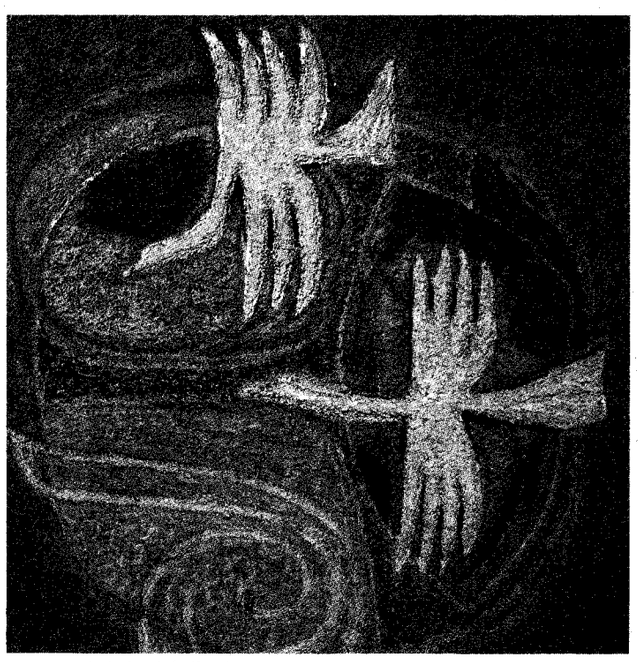
최 병 식
〈미교과 교수, 미술평론가〉

지난 10월31일 소더비와 세계적 경매회사로 손꼽히는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한국미술품 경매가 열렸는데 사상 최고 낙찰가인 7백65만 달러 즉 한화로 63억5천여만원쯤 되는 고미술품이 팔려나갔다. 이 '백자철화용문항아리'는 17세기 조선시대 것으로 수십년만에 한 번 보기 힘든 문화제라고 격찬을 받을 정도로 진귀한 도자기이다. 특히 이 경매는 지난 94년 무려 25억5천만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된 바 있는 15세기 '조선보상답초문접시'에 연이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물론 이 가격은 세계 도자기 경매의 최고가이면서 동양미술품 전체를 망라해도 흔치않는 기록으로서 세계미술시장의 중심지에서 우리 선조들의 미의식이 인정받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계기로 근 5~6년만에 걸쳐서 뉴욕의 소더비, 크리스티 등에서 개최된 경매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세계 여러나라의 소장가와 미술시장의 관심을 끌었던 작품들은 우리 현대미술품이 아니라 백자, 고려불화, 분청사기, 민화, 십장생도 등 모두가 우리 옛 선조들 그 중에서도 시민계층이나 장인들이 만들고 제작했던 미술품들이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미술계의 상황은 다르다. 최근 97년부터 실시되는 미술품 수입자유화에 맞물려서 세계 미술계에서 우리미술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국내 미술계 전반에 걸쳐 당장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그 실험무대로서 얼마전 열린 파리의 FIAC 96이나 곧 서울에서 열릴 서울국제미술박람회 같은 행사들은 모두가 그 탐색의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은 낙관적인 요소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전통미술의 요체가 여지없이 무너져간 근대사의 언저리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일방적인 영향관계에서 다시 열강에 의해 강제 개방되고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몽롱제'라는 도서적 일본 취미에 휩쓸려 왔고 다시 해방과 함께 명멸하는 서구 사조를 숨가뿌게 뒤쫓아 왔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역사였다.

물론 뵐프린의 역사관에 입각한 예술사적 전개를 상기해 본다면 단지 미술사만의 문제는 아닌 정치, 시대사, 문화사의 전반적인 구조적 오류이기는 하겠지만 이미 앞서 열거한 바 있는 우리 선조들의 조형미가 흠씬 담긴 도자기나 민화, 불화나 문인화, 산수화 등의 자연주의적이고 관념세계의 극치를 이루는 미감들이 거의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은 비단 미술 외적인 요인으로만 미루어버릴 수 없을 것 같다.


▲ 김환기 작 '새', oil on canvas, 74×60cm

'슈퍼캔버스'라고 해서 온 지구가 화폭이 될 수 있는 마당에 물론 전통적 재료로서 국한된 소재만을 다루는 것만이 정체적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그 심미세계의 정신적 기초나 전형적인 민족미의식을 발현해온 화풍과 양식들에 대한 현대적 검증과 성찰은 어떠한 전위적 행위에 있어서도 전세 될 수 있다.

우리는 어느덧 '한국화'라는 용어를 15년가량 공식명칭으로 쓰다 시피 하면서도 그 명칭이 갖는 스스로의 자폐적 한계 때문이지, 또한 그 명료한 한계나 본뜻의 상실감 때문이지 진실된 의미의 용어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이 용어는 유화다 수묵화다 하는 재료적인 구분 이외에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진정한 전통의 계승은 그 양식, 재료나 소재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정신적 차원에서 탐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한국미학'등에 대한 정통적인 연구 업적 한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이다. 그렇다고 서양미술 역사, 미학적분야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업적이나 작품활동의 업적이 괄목할 만 하다는 것은 더더욱 아닌 시점에서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폭넓은 주체적 사유체계가 배재된 채 일관된 서구중심의 의식구조에 무비판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자아의 상실뿐 아니라 한치 양보없는 문화전경시대에 낙오를 자초 할 수 밖에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못지 않는 한국미의 정수는 분명히 존재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위적 체제로 이어지는 그 연구와 계승이 미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유화, 캔버스를 사용했지만 뉴욕에서 한국의 자연과 미감을 바탕으로 세계적 작가로 부상했던 김환기나 파리에서 숨을 거둔 이응노와 같은 거장이 그리워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국학의 기초학문이 바닥세를 헤메고 있는 우리의 개탄할 만한 현실에서 국가의 제도적인 차원으로 한국미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관념과 무기교의 기교, 백색의 자연주의, 비장미와 혜학, 곡선의미, 비장제성 등 전통미감을 현대적인 보편치와 연결하여 '전위적 전통, 전통적 전위성'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곧 순수미술 분야를 근간으로 산업제품, 디자인 분야에서의 독창성까지도 가능하게 됨으로서 명실공히 문화전쟁시대를 대비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문화단신

허비행콕 내한공연

'허비행콕'의 내한공연이 11월2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매인 스트림 재즈에서 일렉트로닉에 의한 펑키 스타일, 샘플링을 도입한 재즈 퓨전까지 재즈의 모든 형식을 거쳐 30년을 재즈 피아노의 하이클라스로 군림해온 허비행콕의 공연으로 대중적인 감각을 자신만의 언어로 재창조하여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 789-9789

연극 '교실 이데아'

극단 '한강'은 교육 개혁을 위한 기획공연으로 "교실 이데아"가 96년 12월5일부터 12월29일까지 북촌창우 소극장에서 열릴 계획이다.

이 작품은 '억압된 세상'을 다루고 있고, 우리는 가장 억압되어 있다고 생각되는곳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학교를 떠올릴 수 있다.

이 연극은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 자신들 스스로의 이야기를 편안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부여와 '학교'의 억압된 모습을 통해 자유와 저항을 말하고자 한다. ☎ 762-6036

바른 교육, 구몬 선생님

페스탈로치의 향기를 갖겠습니다

바른교육 실천을 위해 제가 모범으로 삼는 것은 페스탈로치의 인간사랑 교육정신입니다.

빈민 아동을 집으로 데려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시키고, 어린이 개개인의 능력 차이를 중요시하여 연령보다는 능력에 따른 교육을 주창했던 페스탈로치-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바른 교육에 대한 열정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페스탈로치, 그의 정신의 향기를 간직하겠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어린이의 미래도 밝아집니다. 바른 교육을 실천할 구몬선생님을 모십니다.

세계 30개국 어린이와 함께하는
구몬수학/구몬완전국어/구몬영어/구몬한자

구몬선생님을 모십니다.

■**모집부문** : 지도교사(기혼, 미혼)
■**전공학과** : 제한없음
■**모집인원** : ○○○명
■**응시자격**(남·여 공통)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97년 졸업예정자
•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당사소정양식) 1통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사진 : 원서부착용(3×4cm) 1매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 12월 4일)
• 2차 : 면접(지방거주자는 당일 교통비 지급)
■**제출기한**
• 1996년 11월 18일(월)~12월 2일(월) 09:30~18:00
■**지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258번지 구몬빌딩 9층 교육연수부 인사담당자 ㊥110-111
• 사업국 : 하단 원서교부처 참조
■**합격자통지 및 기타 문의사항 자동안내전화**
• 수신자부담 자동응답안내 : 080-920-9090
• ARS 서류합격자 통지는 12월 4일(수)부터 실시합니다.
■**기타**
• 입사지원서 작성시 정확한 주소(통, 반까지)와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 받습니다.
• 대표전화 : (02)3979-185, 186, 189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가까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몬선생님 모집에 관한 정보 서비스 • 하이텔 (HINET-P의 '01410' 접속후 SCOUT 입력) • 천리안 (GO MSCOUT) • 나우누리 (GO SCOUTU) • 유니텔 (GO SCOUTU) • 에이텔 (SCOUT)

교원그룹
공문교육연구원

문의 및 원서교부처
■서울권
• 강 남 564-9401
• 개 포 564-9400
• 선 릉 552-8137
• 관 악 839-3540
• 동 작 821-6145
• 사 당 592-8451
• 서 초 588-7140
• 방 배 598-8888
• 둔 촌 484-3134
• 명일·고덕 484-4142
• 천 호 484-3161
• 송 파 400-9794
• 잠 실 408-2078
• 석 촌 448-5815
• 올림픽 401-1162
• 강 서 608-2363
• 방 화 695-0954
• 신 월 654-8293
• 구 로 854-8190
• 양 천 654-8290
• 영등포 632-0954
• 금 천 854-8194
• 노 원 951-7122
• 상 계 952-9145
• 중 계 952-3373
• 월 계 939-2252
• 도 봉 991-1724
• 수 유 987-8141
• 쌍 문 991-2893
• 창 동 991-1725
• 동대문 953-0541
• 마 포 364-6735
• 광 진 463-1914
• 성 북 921-4054
• 서대문 730-1315
• 성 동 463-1913
• 용 산 364-6733
• 은 평 389-2664
• 종 로 730-1396
• 중 구 730-1336
• 중 랑 209-9053
• 신 내 208-0956
■경기·강원권
• 광명(02)619-2212
• 하안(02)896-2015
• 의정부·동두천 (0351)876-4907
• 하남·광주(0347)793-4761
• 과 천(02)502-0488
• 구 리(0346)67-0092
• 남양주(0346)67-8342
• 성 남(0342)721-7676
• 분 당(0342)706-0521
• 서 현(0342)702-9056
• 안 산(0345) 80-2613
• 상록수(0345)407-9831
• 고양·원당(0344)965-3025
• 일 산(0344)905-2125
• 신일산(0344)905-2122
• 운산·파주(0344)965-3027
• 부 천(032)326-2181
• 남부천(032)325-3144
• 원 미(032)324-4214
• 시 흥(032)694-2306
• 부 평(032)504-3903
• 서인천(032)504-3902
• 인 천(032)427-8193
• 만 수(032)420-1217
• 주 안(032)427-8192
• 연 수(032)427-8196
• 수 원(0331) 32-5762
• 팔 달(0331)222-0380
• 장 안(0331) 37-1821
• 용 인(0335) 38-1610
• 이 천(0336)638-5734
• 안 양(0343) 23-6289
• 동 안(0343) 24-6123
• 안 안(0343)22-0640
• 평 촌(0343)22-6483
• 의 왕(0343)57-4481
• 산 본(0343)95-5527
• 평택·안성(0333) 656-9432
• 송 탄(0333)656-9433
• 김 포(0341)84-4418
• 김 화(0341)84-4419
• 춘 천(0361)243-3572
• 원 주(0371)42-7326
• 강릉·속초·동해 (02)3979-369
■충북·충남권
• 대 전(042)221-4061
• 대 덕(042)622-9464
• 둔 산(042)483-3925
• 옥 천(042)622-9462
• 유 성(042)622-9463
• 영동·금산(0414)44-6436
• 논산·부여·보령 (0461)735-8636
• 천 안(0417)553-6265
• 아산·예산·홍성 (0418)545-9032
• 서산·당진(0455)665-1381
• 청 주(0431)223-6859
• 증평·음성·조치원 (0431)222-4057
• 제 천(0443)47-1087
• 충 주(0441)43-2750
■전북·전남권
• 전 주(0652)82-9090
• 군 산(0654)467-4081
• 익 산(0653)54-8591
• 정 주(0652)82-9651
• 광 주(062)366-9006
• 무 등(062)528-9570
• 목 포(0631)74-6524
• 순천·광양(0661)53-3116
• 여수·여천(0662)651-4508
■경북·경남권
• 대 구(053)424-4786
• 동대구(053)959-5656
• 상 인(053)641-0243
• 수 성(053)751-4105
• 달 서(053)654-4652
• 경 산(053)816-0333
• 하 양(053)854-4738
• 영 천(053)816-0334
• 포 항(0562)82-0594
• 경 주(0561)773-8310
• 구 미(0546)52-5895
• 안 동(0571)858-7741
• 영 주(0572)635-3759
• 칠 곡(053)322-4052
• 선산·상주(0546)456-3664
• 통 영(0557)42-2653
• 김 천(0547)434-5869
• 해운대(051)747-4030
• 부 산(051)811-1670
• 서부산(051)316-8622
• 부산사하(051)256-1392
• 영 도(051)256-1394
• 동 래(051)505-4827
• 김 해(0525)34-8102
• 창 원(0551)63-9572
• 마산·진해(0551)52-0472
• 진 주(0591)747-8714
• 울 산(0522)72-1751
• 동울산(0522)34-6711
• 사천·삼천포(0593)32-3272
• 제 주(064)57-9938
• 서귀포(064) 32-0891
• 울 상(0523)388-1452